

〈특집 1: 물품과 지역성: 동유라시아의 진상과 증여〉

## 10~12세기 탐라의 대외교류\*

고 수 미 \*\*

〈목차〉

- I. 머리말
- II. 탐라의 해양교류와 지향점
  - 1. 고대 탐라의 교류와 지향점
  - 2. 고려전기 탐라와 고려의 교섭
- III. 10~12세기 탐라의 교류 양상
  - 1. 10~12세기 고려와의 경제적 교류
  - 2. 의도하지 않은 교류: 漂流
  - 3. 탐라의 교류양상 변화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0~12세기 탐라의 대외교류 양상을 분석하여 당시 탐라의 해양성과 해양활동의 실체를 모색하였다. 그간 고려전기 탐라와 고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치적 복속 여부, 복속 시기, 성격, 지배형태 등 수장체들간의 교섭관계를 다룬 논의였다. 하지만 '탐라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한 생업과 삶의 확장을 위해 바다로 나아갔다. 전근대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고 한정된 제주의 영역을 확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과 연계되어 있다(NRF-2019S1A5C2A02083627). 그리고 「진상·증여품을 통해서 본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 2020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국내학술대회에 발표하였던 것을 참고 보태어 작성하였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였다. 당시 바다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교역 시스템 안에서 탐라는 나름의 모색을 통해 송-일본-고려 등 주변 국가와 교류를 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받아들인 선진문물은 탐라사회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고려는 건국 후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는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 의식에서 구체화되었다. 宋, 거란, 여진, 탐라, 일본, 대식국 등과 함께 팔관회의 진현의례와 하사를 통해 조공무역으로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을 구현하였다. 탐라는 이를 활용해 고려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려를 찾은 타 국가와의 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탐라는 고려의 번국으로 조공-책봉 질서 안에서 기미지배권에 놓여 있었지만 독립국으로 존재하면서며 해양을 통한 교류활동을 지속하였다. 그 외중에 기상악화와 선박 파손 등으로 표류하여 송이나 일본에 표착하였는데 이는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교류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탐라는 12세기 중반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되면서 독립국으로의 지위를 잃음과 동시에 해상활동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고려정부의 과도한 공부와 수탈은 탐라인들의 반발을 불러와 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 주제어

10~12세기, 탐라, 대외교류, 팔관회, 표류

## I. 머리말

제주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고 한정된 제주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였다. 따라서 고대부터 해양으로 진출하여 매 시기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대외교역과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별과 해

류와 바람으로 만들어진 항해지식과 기술은 인근해역을 넘어 점차 타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해 주었고 이들로부터 받아들인 선진문물과 문화는 제주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해상활동 중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 표류와 표착은 표착지에서의 경험과 제주로 표류해 온 인접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바다와 해양은 탐라가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으며, 탐라는 시기마다 외부의 정치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외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탐라인의 해양세계를 아는 것은 탐라의 해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고대 중국과 한반도,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양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탐라국은 다양한 주변지역과 교역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백제, 신라, 고려와 朝貢관계를 맺어 한반도 지역과 교류를 지속해갔다.

10~12세기 동아시아는 여러 국가들이 공존하는 다중심적 상황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다. 고려는 安保를 위해 거란 및 금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일방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인정하고 예측이 가능한 외교방식이었다. 또한 다중심적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와 송, 일본 등은 외교와 문물 교류를 분리해서 취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교역활동을 위해 송 상인들은 활발하게 고려를 찾았고, 고려는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국제관계를 활용하여 다원적인 세계관을 구현하였다.

고려는 건국 후 주변국의 정세와 정치적 변동들을 조율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는 팔관회의 조하의식에서 구체화되었다. 宋商, 거란, 여진, 탐라, 일본, 대식국 등이 팔관회의 진현의례를 통해 조공무역을 강화한 것은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에 입각한 것이었다. 탐라는 이를 활용해 고려와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려뿐 아니라 고려를 찾은 타 국가와의 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종교, 서적, 도자기 등 송

과 고려의 선진문물을 수입하였다.

10~12세기 탐라는 고려의 간접지배에 놓여있었지만 여전히 독립국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면서부터는 정치 및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탐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탐라와 고려와의 지배 형태 및 성격 규명, 탐라의 지방 편제시기, 고려의 탐라 인식과 변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sup>1)</sup>

탐라와 고려는 시기별로 교류의 양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10~11세기 탐라와 고려는 간접지배 형태로 '進獻과 下賜'라는 조공관계의 성격이었다면, 1105년(숙종 10) 耽羅郡으로 편제된 후 의종대 耽羅縣으로 재편되어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고려의 직접 지배하에 놓였다.<sup>2)</sup> 탐라가 고려의 지방으로 완전히 복속된 후 발생한 수차례의 민란은 과도한 貢賦와 지방관과 토호세력 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측면이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당시 탐라와 고려의 교류양상과 관련된 기록들을 고찰하여 교류의 변화와 성격을 살피는 과정은 탐라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10~12세기 탐라의 대외교류 양상과 관련하여,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고대 탐라와 주변국과의 교류 양상과 지향점에 대해 고찰한 후, 1105년(숙종 10) 고려의 耽羅郡으로의 편제, 의종대 지방관 파견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탐라국에서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는 과정과 사회의

1) 고창석,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 -고려전기를 중심으로-」, 『제주대 논문집』 14, 1982; 진영일,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탐라문화』 16, 1996; 김일우,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 1998; 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김일우, 「高麗와 耽羅의 관계 형성과 그 형태」, 『한국학보』 3-2, 2004;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2005; 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2018; 전영준, 「10~12세기 고려의 渤海難民 수용과 주변국 同化政策」, 『제주도연구』 55, 2021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2) 『高麗史』 卷57, 志 11, 地理 2, 全羅道 耽羅縣.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탐라와 고려 간 ‘進獻과 下賜’를 차용한 경제적 교류양상을 살펴 교역의 실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11~12세기 송-고려-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해상교역 시스템 안에서 의도하지 않은 교류였던 漂流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여 탐라의 대외교류와 해상도시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이후 12세기 중반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되면서 탐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교류양상의 변화도 함께 살펴겠다.

탐라는 10~12세기 섬과 바다라는 시·공간적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쳤으며 변화의 시점에서는 정세 변화에 순응하거나 맞서면서 중세 탐라의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 II. 탐라의 해양교류와 지향점

### 1. 고대 탐라의 교류와 지향점

耽羅에 대한 최초 문헌 기록은 3세기 후반의 ‘州胡’이다.<sup>3)</sup> 5세기 중반의 州胡國<sup>4)</sup> ‘州胡’ 또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耽羅로 비정하고 있다.<sup>5)</sup> 이

3)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條,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4) 『後漢書』卷85, 東夷列傳 韓 條, “馬韓之西, 海上有州胡國. 其人短小髡頭, 衣韋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

5)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등 이외 주호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강화도 설’, ‘묘도 열도 설’ 등이 있다.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학보』 58, 2018 참조.

들 기록에서는 州胡의 교역적 성격이 드러나 있으며 당시 탐라는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다양한 정치체들과 해상교역체계를 갖추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1세기 대에도 탐라의 해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역을 이끌었던 수장층 내지 교역집단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해남 군곡리와 사천 늑도패총에서 동시대 제주산 토기가 확인되고 있고, 오수전, 화천, 대천오십, 화포 등 중국 화폐와, 동경, 동검, 동촉, 옥기 등의 漢式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는 낙랑 군을 매개로 하여 한반도 남부 지역을 통해 수입되었다. 또한 용담동 철기 부장묘에서 보이는 철기 부장품들은 철 생산이 불가능했던 탐라가 弁·辰韓 지역에서 철을 수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탐라인들이 해양교류에 필요한 선박제조기술과 항해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소유한 집단이 도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6)</sup>

탐라가 1~3세기 낙랑·대방-마한-弁·辰韓-倭로 이어지는 교역로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진·변한 계통의 위세품이 출토되는 까닭은 탐라국이 이들 간 교역체계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였으며 교역 범위는 제주산 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한반도 남부지역 전체로 상정할 수 있다.<sup>7)</sup> 이는 탐라에는 생산되지 않는 필요한 물자 확보 및 수장층의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위세품 등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교역활동의 결과였다.

이후 『三國史記』 「백제본기」<sup>8)</sup>와 「신라본기」<sup>9)</sup>에 보이는 탐라와 백제, 신라와의 관계에서 탐라는 백제와 신라의 조공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탐라 전기 고고유물은 중국화폐가 출토되었던 산지향, 금성리, 종달리 외에도 강정동, 화순동, 광지리, 하귀리, 외도동, 용담동 등 제주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7) 장창은,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88쪽.

5세기 탐라는 ‘탐라국’이라는 지명으로 史書에 등장하는데 백제와 신라의 조공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476년(문주왕 2) ‘탐라국에서 방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하면서 耽羅使者에게 恩率 벼슬을 내려 주었다’라는 기록<sup>10)</sup>과 498년(동성왕 20)의 기록<sup>11)</sup> 등에서 보이듯 탐라는 종종 방물을 진상하면서 백제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백제 멸망 후 662년(문무왕 2) 2월 탐라국주 徒冬音律의 신라에 대한 조공 기사에서 보이듯 탐라는 신라의 속국이 되었으며<sup>12)</sup>, 이후 801년(애장왕 2)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기록이 있어<sup>13)</sup> 지속적으로 신라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이후 탐라는 일본과도 교류를 하였다. 탐라와 일본 간 교류는 661년 5월 탐라왕자 阿波伎 등이 일본에 貢獻하였다는 『日本書紀』의 기록이 시작이다. 661년 일본의 견당사가 귀국길에 탐라에 표착하여 탐라왕자의 도움을 받아 귀국하였으며 이때 처음으로 탐라와 일본과의 통교가 이루어지면서<sup>14)</sup> 779년까지 탐라와 일본 간에 15건의 교류기록이 보인

- 
- 8)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年 4月 條,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 9)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2年 2月 條,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 1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年 4月 條,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 11)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年 8月 條,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耽羅卽耽牟羅]”
- 12)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2年 2月 條,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 13)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哀莊王 2年 10月 條, “耽羅國遣使朝貢.”
- 14)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7年 5月 條,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伊吉連博德書云, 辛酉年正月廿五日, 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 東歸. 七日, 行到櫻岸山明. 以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嶋. 便卽招慰嶋人王子阿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다.<sup>15)</sup> 이후 일본과의 교섭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일본의 기록에 탐라는 ‘耽羅嶋’라는 이름으로 10세기 후반까지 교류가 있었다.<sup>16)</sup> 또한 661년 8월 탐라국은 당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17)</sup> 이 시기 신라, 일본, 당과의 교류관계를 감안하면 탐라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긴밀히 적응하며 해외진출을 모색하면서 중국, 한반도, 일본 등과의 교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탐라는 고고유물과 문헌기록에서 보이듯 1세기 전후부터 약 1000여 년간 끊임없이 해양으로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행하였으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시대적 변화에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면서 탐라의 문화와 해양성을 만들어냈다. 탐라의 해양교류는 외부와의 소통방식이자 세계관 구성의 바탕이었다.

## 2. 고려전기 탐라와 고려의 교섭

탐라가 고려와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은 고려로부터 屋主·王子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독립국으로서 조공-책봉 관계 안에서 설정되었다. 성주와 왕자는 당시 탐라국을 대표하는 정치체의 호칭으로, 이는 탐라국의 지위 및 정치질서를 재확인 내지 공인한다는 의미였다.<sup>18)</sup>

탐라와 고려의 공식적인 만남은 925년(태조 8)에 탐라의 方物을 바치면서이다. 이후 938년(태조 21) 탐라국의 태자가 來朝하여 성주와 왕자의

---

五月廿三日, 奉進朝倉之朝. 耽羅入朝, 始於此時.”

15)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신아문화사, 1995. 『일본서기』(12건), 『속일본기』(3건)에서 661년~779년 사이 15건의 교류 기록이 보인다.

16) 이유진, 「탐라의 대일교섭 -『日本書紀』의 교류기록을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222쪽.

17) 『唐會要』 卷100, 耽羅國.

18) 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2018, 266쪽.



賜爵을 받는데<sup>19)</sup>, 성주와 왕자의 직위는 661년(문무왕 2) 高厚·高靑 등 세 형제가 신라의 왕을 만났을 때 신라왕이 큰 아들을 星主, 둘째 아들을 王子, 막내아들에게 都內의 지위를 주었던 데서 시작되었던 것으로<sup>20)</sup>, 이는 태조가 기존 탐라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고려의 영향 아래 포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표 1] 고려전기 탐라의 고려 편입 과정<sup>21)</sup>

	시기	내용
1	938년 12월 (태조 21)	겨울 12월 탐라국의 태자 末老가 來朝하자 星主, 王子의 벼슬을 내려주었다.
2	1011년 9월 15일 (현종 2)	을유, 탐라가 州郡의 예에 따라 朱記를 하사할 것을 간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3	1024년 7월 27일 (현종 15)	임자 탐라의 酋長 周物과 아들 高沒을 함께 雲磨大將軍 上護軍으로 삼았다.
4	1029년 6월 26일 (현종 20년)	6월 계축 탐라의 세자 孤烏弩가 來朝하자, 游擊將軍에 제수하고 袍 1벌을 하사하였다.
5	1043년 12월 27일 (정종 9)	12월 경신 毛羅國 星主 游擊將軍 加利가 아뢰기를, “王子 豆羅가 최근에 죽었는데, 하루도 후계자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号仍을 왕자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이어서 方物을 바쳤다
6	1054년 5월 16일 (문종 8)	탐라국에서 使者를 보내어 태자의 冊立을 축하하므로, 使者 13인에게 관직을 주고 鬻사공과 수행원에게는 賜物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7	1057년 1월 12일 (문종 11)	기축, 高維를 右拾遺로 삼고자 하였다. 중서성에서 아뢰기를, “고유는 탐라 출신이므로 諫省에는 합당하지 않은데, 만일 그 재주를 아깝게 여긴다면 다른 관직을 제수하길 요청합니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8	1063년 3월 9일 (문종 17)	신해 탐라의 새 星主 豆良이 來朝하니, 특별히 明威將軍을 제수하였다.

19) 『高麗史』卷2, 世家 2, 太祖 21年 12月,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20) 『高麗史』卷57, 志 11, 地理 2, 耽羅縣.

9	1090년 1월 23일 (선종 7)	기축, 예빈성에서 毛羅 구당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星主 유격장군 加良仍이 죽고 同母弟인 陪戎副尉 高福壽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부의하는 물품(賄賂之物)은 예전의 사례에 따라 지급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10	1101년 10월 8일 (숙종 6)	을미 毛羅의 새로운 星主인 陪戎副尉 具代를 遊擊將軍으로 삼았다.
11	『고려사』 권57 志 권11 지리2 전라도 진도현 탐라	· 1105년(숙종 10) 毛羅를 耽羅郡으로 고쳤다 · 毅宗 때 縣守官이 되었다.

[표 1]은 고려전기 탐라와 고려의 정치적인 영속관계를 정리한 내용으로, 탐라는 고려의 번국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다 1105년 이후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고려는 건국 후 국가를 경영하며 주변국과의 관계설정과 이에 따른 諸 정책을 실시하였다. 북방의 이민족들과는 羈縻州 설치, 諸蕃勁騎에 대한 重幣卑辭 전략, 발해 난민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諸 정책을 실시하였고, 탐라에 대해서는 고려의 藩國으로 기미지배 방식의 운용을 통한 영향력을 강화시켰다.<sup>22)</sup>

탐라국의 성주는 독립적인 자격을 가지고 고려 및 주변국과 대외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는 탐라가 다른 국가들과 같은 지위로 팔관회에 참석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이후 2번 1011년(현종 2) 탐라가 州郡의 예에 따라 朱記를 내려주기를 청하여 주기를 하사하였다는 것은<sup>23)</sup> 탐라가 고려정부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기를 하사받

21) [표 1]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중심으로 탐라와 고려 간 정치적 복속관계를 정리하였다.

22) 전영준, 「10~12세기 고려의 渤海難民 수용과 주변국 同化政策」, 『제주도연구』 55, 2021, 14~20쪽.

23) 『高麗史』 卷4, 世家 4, 顯宗 2年 9月 乙酉 條, “乙酉, 耽羅乞依州郡例, 賜朱記, 許之”

은 후 탐라국의 성주와 왕자는 고려국왕에게 武散階의 官爵을 수여받았다. 당시 탐라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지만 고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부터는 勾當使를 파견하여<sup>24)</sup> 내정간섭을 하고 탐라의 상황을 보고하였다.<sup>25)</sup>

1011년은 거란의 2차 침입이 종료되고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와 개경과 서경의 황성을 다시 쌓는 등 재정비를 하는 시기로 4월에 迎賓館과 會仙館을 설치하여 사신들을 접대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sup>26)</sup> 영빈관은 1055년(문종 9) 송의 상인이 머물렀던 객관이다.<sup>27)</sup> 여기서 탐라의 朱記요청은 고려의 간섭을 받는 대신 고려의 연안항로 이용 및 객관 설치 등 무역의 규모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055년(문종 9)의 기록에 158인의 탐라상단의 규모와 탐라상단이 머물렀던 朝宗館도 설치되어 있었다.<sup>28)</sup>

[표 1]에서 탐라의 성주와 왕자는 고려왕의 책봉을 받았으며 왕은 이들에게 '雲麾大將軍上護軍', '游擊將軍', '明威將軍' 등 武散階의 직위를 賜爵하고 관복[袍], 衣帶 등을 賜物하고 있다. 9번 사료는 탐라의 성주가 죽어서 부의하는 물품(贈賻之物)을 보내고 있는데 '예전의 사례에 따라 지급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에서 탐라의 성주 혹은 왕자가 죽었을 때 賻儀物品을 보내는 것이 관례화되었던 것 같다. 『高麗史』에서 볼 수 있는 왕의 부의물품으로는 쌀, 콩, 포, 종이 등이 보인다.<sup>29)</sup>

24) 『高麗史』卷9, 世家 9, 文宗 33年 11月 條, “壬申,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25) 전영준, 「10~12세기 고려의 渤海難民 수용과 주변국 同化政策」, 2021, 18쪽.

26) 『高麗史』卷4, 世家 4, 顯宗 2年 4月 條, “丁卯, 置迎賓·會仙二館, 以待諸國使.”

27) 『高麗史』卷7, 世家 7, 文宗 9年 2月 條, “戊申, 寒食, 饗宋商葉德寵等八十七人於娛賓館, 黃拯等一百五人於迎賓館, 黃助等四十八人於清河館.”

28) 『高麗史』卷7, 世家 7, 文宗 9年 2月 條, “戊申 寒食, …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고려는 문호를 개방하여 외국인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賓貢科가 설치되어 있었다. 탐라인으로는 977년(경종 2)에 진사시 갑과에 高凝 등 3인과 을과 3인 최초로 합격하면서<sup>30)</sup> 人的 교류도 일어났다. 그 후 1057년(문종 11) 高維를 右拾遺에 임명하려 하였지만 탐라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임명하지 못하고,<sup>31)</sup> 『高麗史』 列傳 高兆基條에 고유가 右僕射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32)</sup> 1107년(예종 2) 고유의 아들 고조기가 문과에 급제하여 1135년(인종 13) 김부식의 보좌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의종 때에는 參知政事判兵部事와 中書侍郎平章事를 역임하였다.<sup>33)</sup> 이처럼 탐라인이 고려의 고위관료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탐라가 일정 정도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개경에서 이들의 존재는 탐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탐라인들이 개경을 방문했을 때에도 적잖이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적 왕래 및 물질 교류는 탐라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였다.

탐라는 1105년(숙종 10) '耽羅郡'으로 편제되면서 독립국의 지위에서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毅宗代 縣令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sup>34)</sup> 1153년(의종 7) 팔관회에 '耽羅縣'으로 진현한 기록이 있어<sup>35)</sup> 1153년 이전에 탐라현으로 편제되었지만, 「吳仁正 墓誌銘」

29) 『高麗史』 권64 志18 禮6 凶禮 諸臣喪. “高麗 大臣之卒 賻贈恩恤 極爲優厚” 탐라의 성주에게도 그 정도의 부의물품을 보냈을 것이다.

30)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45쪽.

31) 『高麗史』 卷8, 世家 8, 文宗 11年 1月 條, “己丑, 以高維爲右拾遺. 中書省奏, ‘維系出耽羅, 不合諫省, 如惜其才, 請授他官.’ 從之.”

32) 『高麗史』 卷98, 列傳 11, 諸臣 高兆基 條, “高兆基. 初名唐愈, 耽羅人. … 父維. 右僕射.” 右僕射는 尙書右僕射라고도 불리며 尙書省의 정2품 관직이지만 실직이 아니어서 宰樞의 반열에 들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유는 실직을 부여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33) 『高麗史』 卷98, 列傳 11, 諸臣 高兆基 條.

34) 『高麗史』 卷57, 志 11, 地理 2, 珍島縣 耽羅縣 條.

에서 오인정이 탐라에 勾當使로 파견되었는데 1155년(의종 9)에 병을 얻어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내용<sup>36)</sup>으로 보아 현령 등의 지방관은 1155년 이후에 파견되었던 것 같다. 1153년 이후부터 탐라의 진헌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211년(희종 7) 고을(탐라)의 石淺村을 歸德縣으로 삼아 주현과 속현의 관계가 되었으며, 1216년(고종 3) 다시 '탐라군'으로 편제, 이후 1229년(고종 16) '濟州'로 명칭을 변경하고 副使와 判官을 파견하였다.<sup>37)</sup>

하지만 1105년 이전에도 탐라는 고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보인다.

II-① 1052년(문종 6) 임신, 삼사에서 아뢰기를, “탐라국에서 해마다 바치는 굴을 100包子로 개정하고, 이를 항구한 제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sup>38)</sup>

II-② 1058년(문종 12) 왕이 탐라 및 영암에서 재물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장차 송과 통하려고 하니, 내사문하성에서 아뢰기를, … 또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빈곤하여, 오직 해산물과 배 타는 것으로 집안을 경영하고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에는 목재를 베어 바다 건너 사찰을 새로 창건하여 피로가 이미 쌓여 있으므로, 지금 또 이 일로 거듭 괴롭히면 다른 변이

35) 『高麗史』 卷18, 世家 18, 毅宗 7年 11月 條, “庚子, 耽羅縣徒上仁勇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來, 獻方物.”

36) 김용선, 「吳仁正 墓誌銘」, 『역주 고려 묘지명집성』 上,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是差授毛羅島句當使 …… 貞元三年 仍遇疾還京 至其年七月 乃葬于法雲山西北”

37) 『高麗史』 卷57, 志 11, 地理 2, 珍島縣·耽羅縣 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建置沿革 條.

38) 『高麗史』 卷7, 世家 7, 文宗 6年 3月 27日 壬申 條,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 從之.”

생길까 두렵습니다.<sup>39)</sup>

II-③ 1079년(문종 33) 탐라 勾當使 尹應均이 夜明珠 2枚를 바쳤는데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당시 사람들이 夜明珠라고 하였다.<sup>40)</sup>

위의 기록들은 탐라가 탐라군으로의 편제 이전에도 해마다 굴을 세공품으로 공납하고 있었으며, 탐라민들은 사찰을 조영하거나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목을 충당하고 더불어 役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③의 기록은 최소한 1079년 이전에 탐라에 구당사<sup>41)</sup>가 파견되어 민정을 살폈으며 이는 고려가 탐라에서 생산되는 물산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탐라가 지방정부로 완전히 편입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고려의 번국으로 위치하면서 간접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후 의종대 탐라현으로 편제되면서 지속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進獻과 下賜’라는 교류의 성격은 없어지고 진상은 고려의 지방민으로서 의무적 공납으로 바뀌었다. 이후 과도한 공납과 지방관들의 수탈은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민란이 일어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39) 『高麗史』 卷8, 世家 8, 文宗 12年 8月 條,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從之.”

40) 『高麗史』 卷9, 世家 9, 文宗 33年 11月 條. “壬申,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41) 고려는 994년(성종 13) 河拱辰을 압록도 구당사로 파견하였다(『高麗史』 卷3, 世家 3, 成宗 13年 8月 條). 이후 1011년(현종 2) 탐라가 州郡의 例에 따라 朱記를 요청하였다는 기록이 있어(『高麗史』 卷4, 世家 4, 顯宗 2年 9月 條) 아마 1011년 이후 탐라에도 구당사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Ⅲ. 10~12세기 탐라의 교류 양상

#### 1. 10~12세기 고려와의 경제적 교류

고대국가 단계에서부터 활발하였던 동아시아 국가 간 대외교류는 중세에도 지속되어 고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諸國간 무역망이 형성되었고 고려는 동북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대외교류를 펼쳤다. 북방지역의 거란, 말갈, 여진과의 통교와 羈縻州 설치, 송과 아라비아, 일본, 탐라 등과의 해로무역 등은 개경의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를 중심으로 公私무역 등이 성행하였다. 고려는 매년 팔관회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체제질서를 만들어갔다. 팔관회 의례 중 외국 사신이나 상인들의 朝賀儀式은 고려의 대외적 위상을 높여주었으며 왕실, 관청, 관료들을 대상으로 진헌무역을 행하였다. 고려와 동북아시아 諸국가 간에는 해로를 이용한 해양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송, 동서번, 흑수, 말갈, 탐라, 일본, 대식국, 비내국<sup>42)</sup> 등의 국가에서 조공을 받았으며 특히 발달한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송 상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무역품으로는 왕실에서 소비되는 사치품 외에도 생활용품, 서적, 방문국가의 土産物 등 다양하였다. 고려의 하사품으로는 고려의 특산물인 종이, 인삼, 청자 등이었다.<sup>43)</sup>

탐라는 고려적 질서 안에서 고려의 무역망을 활용하여 주변국과의 무역에 참가하였다. 조공과 책봉체제를 수용하여 고려왕에게서 성주·왕자의 지위와 작위를 부여받는 것은 탐라민들에게 지배층(또는 토호세력)의 권

42) 『高麗史』卷4, 世家 4, 顯宗 9年 6月 乙亥 條.

43) 전영준, 「고려시대 동아시아의 해양과 국제교류 양상」,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84~85쪽.

위와 지위를 보장해주는 장치였다. 또한 진헌과 하사라는 관계 안에서 일정 정도 독립국으로 교역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팔관회에서의 외국인 진헌 의례 참가 및 고려를 비롯한 송, 여진, 거란, 일본, 대식국 등 여러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부를 쌓았다. 필요한 물품 구입 외에도 고려왕의 하사품과 서적, 도자기, 종교시설, 의례 등의 선진문물 수입 등의 문화교류는 탐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통로였다.

[표 2] 고려 전기 탐라의 진상 사례<sup>44)</sup>

회	시 기	내 용
1	925년 11월 (태조 8)	11월 기축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쳤다.
2	1012년 8월 7일 (현종 3)	임인에 탐라인이 와서 큰 배 2척을 바쳤다.
3	1019년 9월 9일 (현종 10)	임술에 重陽節이었으므로 邸館에서 송과 탐라, 흑수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4	1021년 7월 3일 (현종 12)	병자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쳤다.
5	1022년 2월 9일 (현종 13)	기유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쳤다.
6	1027년 6월 15일 (현종 18)	탐라에서 방물을 바쳤다.
7	1029년 7월 1일 (현종 20년)	탐라에서 방을 바쳤다.
8	1030년 9월 1일 (현종 21)	9월 신해 초하루에 탐라에서 방물을 바쳤다.
9	1034년 11월 4일 (정종 원년)	팔관회를 열었는데, 神鳳樓 나아가 백관에게 술과 음식[脯]을 하사하였으며, 저녁에 법왕사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大會 때 또한 또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악 공연을 관람하였다. 東京·西京·東路兵馬使·北路兵馬使·4都護·8牧에서 각각 표문을 올려 하례하였고, 宋의 商客과 東蕃·西蕃·耽羅國에서 또한 方物을 바쳤다. 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賜坐] 음악을 관람하였는데, 이후로 상례로 삼았다.

44) [표 2]는 10~12세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중심으로 탐라의 진상과 물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0	1036년 11월 15일 (정종 2)	11월 기축에 팔관회를 열자, 송 상인과 동여진, 탐라에서 각각 방물을 바쳤다.
11	1043년 12월 27일 (정종 9)	12월 경신, 毛羅國 星主 遊擊將軍 加利가 아뢰기를, “王子 豆羅가 최근에 죽었는데, 하루도 후계자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曷仍을 왕자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이어서 方物을 바쳤다
12	1049년 11월 13일 (문종 3)	11월 임인에 탐라국 振威校尉 夫乙仍 등 77인과 北女眞 首領 夫擧 등 20인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3	1052년 3월 27일 (문종 6)	임신에 三司에서 아뢰기를, “탐라국에서 해마다 바치는 굴을 100包子로 개정하고, 이를 항구한 제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14	1053년 2월 7일 (문종 7)	탐라국 왕자 殊雲那가 아들 陪戎校尉 古物 등을 보내어 우황·우각·우피·나육·비자·해조·구갑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이 왕자에게 中虎將軍을 除授하고 公服·은대·채단·약물을 하사하였다.
15	1054년 5월 (문종 8)	기묘에 ... 탐라에서 使者를 보내어 태자를 책봉하여 세운 것을 하례하였으므로 사자 13인에게 관직을 주고 뱃사공과 수행원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16	1055년 2월 20일 (문종 9)	무신에 한식이므로 송 상인 葉德寵 등 87인은 娯賓館에서, 黃拯 등 105인은 迎賓館에서, 黃助 등 48인은 淸河館에서, 탐라국 首領 高漢 등 158인은 朝宗館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17	1056년 2월 27일 (문종 10)	기유, 耽羅國에서 방물을 바쳤다.
19	1062년 2월 27일 (문종 16)	을사, 탐라에서 高岬 등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20	1062년 10월 6일	겨울 10월 기묘에 탐라성주 高逸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21	1063년 3월 (문종 17)	신해에 耽羅星主 豆良이 來朝하였다. 특별히 明威將軍을 제수하였다.
22	1068년 3월 (문종 22)	정묘에 탐라성주 遊擊將軍 加也仍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고려사절요에는 2월로 기록됨)
23	1073년 11월 12일 (문종 27)	신해에 팔관회를 열고 神鳳樓에서 觀樂하였다. 다음 날 대희일에 大宋 黑水·耽羅 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
24	1077년 12월 1일 (문종 31)	탐라국에서 方物을 바쳤다.

25	1079년 11월 8일 (문종 33)	임신에 탐라구당사 윤응균이 큰 진주 두 매(枚)를 바쳤는데,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당시 사람들이 夜明珠라고 하였다.
	1086년 2월 7일 (선종 3)	병인에 毛羅의 游擊將軍 加於乃 등이 와서 축하하고 方물을 바쳤다.
26	1086년 2월 권88 열전 권제1 后妃	문종 후비 인예순덕태후 이씨 선종 3년 2월에 책봉되어 太后가 되자 각 道에서 모두 賀禮하는 表文을 올렸으며 … 耽羅에서도 또한 來賀하면서 토산물을 바쳤다.
27	1092년 2월 26일 (선종 9)	기묘에 탐라의 성주 懿仁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자, 定遠將軍을 더하고 衣帶를 하사하였다.
28	1094년 6월 19일 (선종 11)	무자에 宋의 都綱 徐祐 등 69인과 毛羅의 高的 등 194인이 와서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29	1095년 7월 20일 (헌종 원년)	계축에 毛羅의 高勿 등 8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30	1096년 9월 12일 (숙종 원년)	경자에 毛羅 星主가 사람을 보내 왕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31	1100년 11월 16일 (숙종 5년)	무인에 宋 상인과 毛羅 및 女眞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33	1101년 11월 14일 (숙종 6)	송의 상인과 탐라 및 東北蕃의 酋長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34	1153년 11월 15일 (의종 7)	경자에 耽羅縣의 徒上 仁勇副尉 中連과 珍直 등 12인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

[표 2]는 고려전기 탐라와 고려 간 방물진상과 하사에 관련된 사례를 추출한 것으로 약 34차례 진상기록이 보인다. 고려시대 탐라에 관한 최초 기록은 925년(태조 8)으로, 11월에 탐라에서 方물을 바쳤다는 기사이다.<sup>45)</sup> 당시 신라의 속국이었던 탐라는 신라가 후삼국으로 나뉘고 고려가 건국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탐라가 처음 고려를 찾은 925년은 9월부터 발해장군 申德 등 500명의 내투를 시작으로<sup>46)</sup> 발해유민들의 歸附가 이어졌고,<sup>47)</sup> 買曹城(경기도 양주)의 장군 能

45)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년 11월 條, “十一月, 己丑, 耽羅貢方物.”

玄의 항복,<sup>48)</sup> 10월에는 高鬱府(경북 영천지역) 장군 能文이 來投하고<sup>49)</sup> 태조가 견훤과 화친을 맺는<sup>50)</sup> 등의 상황이 벌어지던 시기로 탐라는 11월에 방물을 바치고 고려에 복속하고자하는 뜻을 전하며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였다. 탐라는 아마 팔관회<sup>51)</sup>에 참가하여 방물을 진상하고 하사품을 받았을 것이다.

팔관회는 태조가 ‘與民同樂’을 강조하며 訓要十條에 매년 설행할 것을 명시하여<sup>52)</sup>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례이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 안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축제로 이 과정에서 ‘고려인’으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의례가 진행되었고, 각종 禮樂과 百戲歌舞는 고려 문화의 결집체로 고려 문화를 유지해 가는 핵심적 장치였다. 또한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에 참가하는 송, 거란, 여진, 말갈, 탐라, 일본 등은 고려의 신하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의 德化를 받는 조공국의 使者로 예우되었다.<sup>53)</sup> 여기에는 고려를 중심으로 한 질서체계 안에 존재한다는 고려의 대외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고려는 주변국과의 조하의식을 통해 천자와 제후 관계를 설정하여 天下觀을 드러냄과 동시에 진헌과 하사를 통해 진헌 무역을 실행하였다.<sup>54)</sup>

46)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年 9月 6日 條.

47)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年 9月 10日 條.

48)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年 9月 24日 條.

49)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年 10月 10日 條.

50)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年 10月 16日 條.

51)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元年 11月 條, “十一月, 始設八關會, 御儀鳳樓觀之, 歲以爲常.”

52) 『高麗史』 卷2, 世家 2, 太祖 26年 條. 팔관회는 헤랑의 건의로 불교 교리를 전하기 위해 551년(진흥왕 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 전물군사를 위한 위령제로, 護國적 성격을 가진 국가행사로 설행되었으며, 궁예는 지역의 토속신들을 위한 제사의식으로, 고려는 국가축제로 각기 성격은 다르지만 고려 말까지 이어졌다.

53)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13~214쪽.

54) 고수미,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더불어 팔관회는 국제무역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팔관회 전후로 전국의 지방관들은 공물과 賀表를 가지고 참가하였고, 외국의 상인들 또한 사신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팔관회는 대외무역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순기능도 갖고 있었다.<sup>55)</sup>

고려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무역망을 활용하여 1034년(정종 원년)부터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을 상례화 시켰다. 탐라 역시 송과 동·서번과 같은 외국의 지위로 팔관회의 조하의식과 연회에 참여하였고<sup>56)</sup> 팔관회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무역을 진행하였다. 탐라는 1153년까지<sup>57)</sup> 팔관회 참가 외에도 30여 차례 진헌을 했던 기록이 있으며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된 후에도 일정 기간 탐라국의 지위로 고려와 진헌무역의 형태로 교류가 지속되었다. 탐라의 팔관회의 참여는 고려의 번국으로의 지위 유지와 대외교류의 한 방편이었고, 고려를 기반으로 고려에 방문한 각국의 상인들과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였다.<sup>58)</sup> 1153년(의종 7) 탐라현으로 복속되었던 시점에도 팔관회에 방물을 진상했던<sup>59)</sup> 이유도 이러한 고려적 질서 안에 탐라가 속하고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당시까지도 ‘徒上’으로 표현되는 탐라상단<sup>60)</sup>의 무역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논문, 2014, 11쪽.

55) 고수미,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2014, 14쪽.

56) 『高麗史』卷69, 志 23, 禮 11, 嘉禮雜儀, 仲冬 八關會, “十一月,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醕, 翌日, 大會, 又賜醕, 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樂, 後以爲常.”

57) 『高麗史』卷18, 世家 18. 1153(의종 7)년 팔관회에 耽羅縣의 명칭으로 方物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로 보아 1105년(숙종 10)에 耽羅郡으로 편제되었지만 일정기간 외국의 지위로 진헌무역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8) 고수미,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17쪽.

59) 『高麗史』卷18, 世家 18, 毅宗 7年 11月 條, “庚子 耽羅縣徒上仁勇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來, 獻方物.”

[표 2]에는 탐라 상단의 숫자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는데(12, 15, 16, 28, 29, 34) 6회가 확인된다. 1049년(문종 3) 탐라국 振威校尉 夫乙仍 등 77인, 1054년(문종 8) 탐라使者 13인과 뱃사공, 수행원, 1055년(문종 9) 탐라국 首領 高漢 등 158인, 1094년(선종 11) 毛羅의 高的 등 194인, 1095년(현종 원년) 毛羅의 高勿 등 80인, 1153년(의종 7) 耽羅縣의 徒上 仁勇副尉 中連과 珍直 등 12인 등으로 상단의 규모가 많게는 200여 명으로 구성된 상단이 방문했었으며, 1153년은 耽羅縣으로 편제된 후의 내용으로 상단의 규모가 작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록 외에도 고려를 방문하는 것은 자주 갈 수도 없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상단을 구성하여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宋商은 娛賓館에, 탐라국 首領은 朝宗館에서 접대한 기사<sup>61)</sup>는 탐라국 상단이 머물렀던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송상보다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교역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탐라인들은 교역국과 탐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각종 생활물품들과 금속기, 도자기, 장식품 등을 수입하고 각종 해산물, 축산물, 약재 등을 조공품이나 상품으로 수출하였다. 고려시대 탐라에서 진상했던 방물의 품목들을 보면 선박, 굴, 牛黃, 牛角, 牛皮, 螺肉, 비자, 海藻, 龜甲, 진주, 말 등이며 이외 특산물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에 고려는 公服, 銀帶, 綵段 등 賜

60) 高橋公明은 '徒上'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제3위의 名譽職'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高橋公明,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과 고려」, 『도서문화』 20, 2002, 252쪽), 전영준은 향파두리 名文瓦 분석 인용에서 '高內村 徒上(都內)'을 특정 목적으로 기와를 제작한 세력으로 고려시대 이전 탐라국에서 사용되었던 계층적 질서의 표현이었던 '都內와 동일한 명칭으로 보고 있다(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2015, 199~200쪽).

61) 『高麗史』 卷7, 世家 7, 文宗 9年 2月 條, “戊申 寒食, 饗宋商葉德寵等八十七人於娛賓館, 黃拯等一百五人於迎賓館, 黃助等四十八人於清河館,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爵에 따른 사여품과 인삼, 서적, 청자 등 고급물품을 하사하였다.

탐라의 특산물은 상품가치가 높아 대외적으로 탐라의 위상을 높였다. 말린 전복인 ‘耽羅鮑’과 말린 고기포인 ‘耽羅方脯’는 유명하여 일본 황실에도 진상되었다.<sup>62)</sup>

『삼국사기』에는 탐라가 조공했던 물품의 구체적인 명칭보다는 ‘方物’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 상세한 방물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의 교류에서 탐라의 물산이라고 추정되는 738년 『周防國正稅帳』의 ‘耽羅方脯’, 746년 平成宮出土木簡에 기록된 ‘耽羅鮑’, 927년 『延喜式』 主計上式の ‘耽羅鮑’ 등이 보인다. 이들 물품 중 耽羅方脯를 제외한 耽羅鮑의 진상지역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원산지는 탐라로 보고 있다.<sup>63)</sup>

전복은 예로부터 최고의 강장식품으로 인정 받아온 해산물 중 하나로 『慈山魚譜』에는 전복을 ‘복어’라고 소개하면서 ‘살코기는 맛이 달아서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려서 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라고 전복을 소개하고 있다. 탐라의 전복은 고대부터 품질이 좋은 산물로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屠門大嚼』에는 ‘大鮑’은 제주에서 나는 것이 가장 크다. 맛은 작은 것 보다는 못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매우 귀하게 여긴다. 라는 내용이 있어<sup>64)</sup> 탐라에서 생산되는 전복의 품질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탐라의 굴도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1052년(문종 6) 탐라의 歲貢으로 굴을 100包子로 정하였는데<sup>65)</sup> 이전에도 일정량의 굴을 중앙에 납부하였는데 연등회나 팔관회에서 임금이 관리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주는 물품

62) 전경수, 「耽羅鮑과 “耽羅海” : 公共體의 “海政學”을 위하여, 『제주도연구』 50, 2018, 93쪽.

63) 전경수, 「耽羅鮑과 “耽羅海” : 公共體의 “海政學”을 위하여, 2018, 93~94쪽.

64) 오영주, 「제주전복 역사성 기반의 식품특화전략」, 『제주도연구』 53, 2020, 226쪽 사료 재인용.

65) 『高麗史』 卷7, 世家 7, 文宗 6年 3月 27日 條.

이었고 조선시대에도 果園을 설치하여 국가가 관리하면서 제주도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대표적인 공납물이기도 하다.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에 굴에 대한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崔滋가 濟州副使로 왔던 기간에 이규보에게 굴을 선물로 보내니 이규보가 시로 사례하면서<sup>66)</sup> ‘탐라가 아니면 보기조차 어려운 것(除却耽羅見尙難)’, ‘제주 외에는 나지 않는다(此橘耽羅外無之)’라고 하며 굴을 ‘선계의 과일(此果眞仙物)’이라 칭하고 있다.<sup>67)</sup> 이처럼 전복 뿐 아니라 굴도 탐라의 고급 특산물이었으며 고려에서 행사에 쓰인 후 왕의 하사품으로 사용될 만큼 인기 있는 方物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sup>68)</sup>에 제주의 土貢과 土産에 전복, 굴, 말미 모두 포함되어있다. 조선 초의 사료이지만 고려시대 탐라의 모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2. 의도하지 않은 교류; 漂流

표류는 항해 도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의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국가 간의 교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다를 통한 교류가 빈번했던 시기 표류(漂着, 漂到)를 통해서도 탐라와 주변국과의 교류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을 매개로 형성된 무역망은 동아시아의 해상교역체제를 만들었다. 송·고려·일본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 구축, 해양도시 간 네트워크 성립, 송의 市舶使제도라는 교역시스템을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66) 『東國李相國後集』 卷2, 古律詩「濟州太守崔安以洞庭橘見寄以詩謝之」; 『東國李相國後集』 卷3, 古律詩「次韻濟州守崔安以前所寄詩韻問訊兼貺青橘」.

67) 『東國李相國後集』 卷2, 古律詩「濟州太守崔安以洞庭橘見寄以詩謝之」“學士見和 親訪見贈 復次韻奉答”

68) 『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旌義縣·大靜縣 土貢;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土山.

아 해역 세계가 해상을 통한 국가·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sup>69)</sup> 이 외중에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선박 파손에 의해 발생하는 표류는 필연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한라산은 1,954m의 표고로 고대부터 동중국해 연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고 가지범위가 170km여서 멀리서도 잘 보여 남해안이나 동중국해를 향해하는 선박들의 표식이 되었으며 안전한 해역의 경계를 알리는 기능도 하였다. 또한 탐라는 고려·宋元·일본(倭)의 무역항로 상에 위치하는 중간(교점)지역으로 '제주는 해외 巨鎮으로 송상과 왜인이 무시로 왕래한다.'<sup>70)</sup> 는 기록은 탐라가 고려와 송, 일본을 오가는 선박들의 교통로에 있으면서 상인들의 이정표 기능을 제공하였다.

당시 탐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1269년 원 황제는 일찍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탐라에 이르렀다가 남송과 일본에 간다면 바닷길이 매우 쉬울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千戶 탈탈아(脫脫兒)·王國昌·劉傑을 고려의 경계로 보내어 탐라 등지의 길을 살피고 군사와 함선을 점검하며 고려왕으로 하여금 바닷길의 지리에 밝은 관원을 뽑아 보내어서 인도하고 앞서 나아가도록 조서를 내렸으며,<sup>71)</sup> 그해 10월에 고려에게 일본정벌을 위해 병력 1만, 선박 1,000척, 그리고 탐라에서 선박 100척을 만들 것과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

69) 전영섭, 「10~13세기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석당논총』 50, 2011, 377쪽.

70) 『高麗史』 卷25, 世家 25, 元宗 元年 2月 庚子 條, “濟州海外巨鎮, 松商島倭無時往來.”

71) 『元高麗記事』 耽羅 至元 6年 7月 條, “世祖皇帝至元六年七月五日, 樞密官奉旨, 差千戶脫脫兒·王國昌·劉傑赴高麗地界, 相視耽羅等處道路, 整點軍兵船艦, 令高麗王選差知識海道地面好官, 領引前去. 詔曰, “諭高麗國王王植, 以其曾有人云, ‘若至耽羅, 欲往南宋并日本道路甚易.’ 今復遣明威將軍都統脫脫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劉傑, 就彼點整卿所備軍兵船隻, 并先行相視耽羅等處道路, 卿當應副大船, 可選堪委見職正官, 務要引送道達, 以副朕懷.”

72) [표 3]은 『高麗史』와 裴淑姬, 「宋代 東亞 海域上 漂流民의 發生과 送還」, 『중



[표 3] 11~12세기 탐라의 표류 사례<sup>72)</sup>

	시 기	사료	내 용	표착지
1	1029년 7월 28일 (현종 20)	『고려사』 권 5	을유 탐라 백성 貞一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과거에 정일 등 21인이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에 떠내려가 동남쪽의 지극히 먼 섬에 도착하였다. 섬사람들은 키가 크고 덩치도 컸으며 온 몸에 털이 나고 언어가 달랐는데, 7개월 동안 위협을 당하며 억류되어 있었다. 정일 등 7인이 작은 배를 훔쳐 동북쪽으로 가서 일본 那沙府에 이르러서, 그리하여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동남쪽 의 섬 -日本
2	1031년	『小右記』 8	탐라인 伯達 등 9명이 일본에 표착하여 돌아왔다.	日本
3	嘉祐年間 (1056~ 1063년)	『海東繹史』 40권 交聘志 漂流	嘉祐年間に 崑山縣 上海에 돛대가 부러진 배 한 척이 바람에 표류하여 해안에 도착하였다. 배 안에는 30여 인이 타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그들이 글 하나를 내어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는데, 바로 天授年間(918~933)에 屯羅島首領陪戎副尉에 제수한 것이었다. 또 글 하나가 있었는데, 고려에 올리는 표문으로 역시 屯羅島라고 칭하였으며…… 그 당시에 贊善大夫 韓正彦이 崑山縣知事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과 음식을 내려 주었다.…… 한정언이 사람을 시켜서 배의 돛대를 고쳐주게 하였는데, 돛대를 예전대로 船木의 위에다가 꽂으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에 工人이 回轉軸을 만들어서 일으키고 쓰러뜨리는 법을 가르쳐 주니, 그 사람들이 또 기뻐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받들고는 말이 땅에 엎드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夢溪筆談』 삼가 살펴보건대 屯羅는 지금의 耽羅이다.	宋 蘇州 崑山縣
4	1078년 9월 1일 (문종 32)	『고려사』 권 9	9월 계유 초하루 日本國에서 耽羅 표류민 [飄風民] 高礪 등 18인을 돌려보냈다.	日本
5	1080년 (원풍 3)	『元豐類稿』 『曾鞏集』 권 32	탐라인 崔舉 등이 표류하여 泉州에 닿았으며 明州에서 귀국하였다.	宋 泉州

6	1088년 7월 (선종 5)	『고려사』 권 10	가을 7월 송의 明州에서 우리 탐라(我耽)의 표류민 用岬 등 10인을 돌려보냈다.	宋
7	1097년 6월 12일 (숙종 2)	『고려사』 권 11	갑오 송에서 우리 표류민 子信 등 3인을 돌려보냈다. 처음에 탐라민 20인이 배에 탔는데 표류하여 나국(鰥國)에 들어갔다가 모두 살해당하고, 다만 이 3인만 탈출할 수 있어서 송에 갔다가 이때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鰥國 - 宋
8	1099년 7월 20일 (숙종 4)	『고려사』 권 11	송에서 우리 毛羅(탐라) 사람으로 배를 잃고 표류한 趙暹 등 6인을 돌려보냈다.	宋
9	1134년 (소흥 4)	『建炎以來 繫年要錄』 권 78	羅州島人 光金과 그 무리 10여 명이 탐라에서 배를 출발하였는데 바람으로 泉州 泰楚境으로 표류하였다.	宋 泉州

을 조사할 관리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73)</sup> 그리고 1272년(원종 13) 삼별초를 평정하기 위해 흑산도와 탐라의 바닷길을 조사하여 만든 지도를 바치자 먼저 탐라를 취하면 탐라의 선박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74)</sup> 이처럼 탐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 고려는 물론 송과 일본도 송-고려-일본의 해양교역 시스템 안에서 중간기착지로 인식하고 있었고 송과 일본 상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탐라가 남긴 문헌사료가 남아있지 않아 고려와 중국, 일본이 남긴 소

국사연구』 65, 2010, 77~79쪽. <표 1> 宋·高麗(耽羅)·日本 각 국의 표류현황; 전 영섭, 「10~13세기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2011, 379~387쪽, [표] 10~13세기 高麗·宋·日本의 표류실태 정리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73) 『高麗史』 卷26, 世家 26, 元宗 9年 10月 條, “庚寅, 蒙古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劉傑等十四人來, 詔曰, “卿遣崔東秀, 來奏, ‘備兵一萬, 造船一千隻事.’ 今特遣脫朶兒等就彼, 整閱軍數, 點視舟艦. 其所造船隻, 聽去官指畫. 如耽羅已與造船之役, 不必煩重, 如其不與, 卽令別造百艘.”

74) 『元高麗記事』 耽羅 至元 9年 11月 15日 條, “十一月十五日, 中書省奏, “先奉旨議耽羅·日本事. 臣等同樞密院官詢問, 有自南國經由日本來者耽羅人三名, 畫到圖本.”

략한 문헌자료에 의지하여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 있지만, 당시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였던 탐라인들에게 무수한 표류방향이 발생했을 것이다.

10~12세기 고려인의 표류 기록은 31회로 이 중 탐라인의 표류는 9회이다. 【표 3】의 내용은 11~12세기 탐라인들이 해상활동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타국으로 표류하게 된 사례들이다. 9건의 기사 중 1번의 경우처럼 동남아의 섬으로 표류하였다가 일본을 경유해서 돌아오거나, 일본으로 표류하였다가 귀환하는 경우가 4건, 7번의 驪國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宋을 경유해서 돌아오고 있으며, 각기 표착지는 다르지만 6건의 표류민들이 宋에서 귀환하였다. 탐라인들의 표류기사는 10세기에는 보이지 않고 11세기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번-8번까지 모두 11세기의 표류기록이다). 이는 이 시기 탐라인들의 해상을 통한 대외무역이 가장 왕성하였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11세기는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현종대 이후 대외무역이 확대되었고 11세기말~12세기초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 시기 탐라도 능동적으로 바다를 통한 주변국과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1134년 이후로 탐라인의 표류기사는 1229년(고종 16)에 1회 보이며,<sup>75)</sup> 그 후에는 110여년 후인 1379년(우왕 5)<sup>76)</sup>과 1381년(우왕 7)<sup>77)</sup> 두 건의 표류기록만 보인다. 즉 탐라의 지방편제 후에는 탐라의 해상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교역의 공간적 범위도 고려로 한정되어 안전하고 익숙한 항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류민들의 송환 경로는 평상시 이용하였던 항로를 이용하였다. 계절별 표류민의 표착과 송환 시기는 송, 고려, 일본의 항해시기와 거의 일치

75) 『高麗史』卷22, 世家 22, 高宗 16年 2月 條, “乙丑, 宋商都綱金仁美等二人, 偕濟州飄風民梁用才等二十八人來.”

76) 『高麗史』卷134, 列傳 47, 禡王 5年 6月 條, “帝遣還耽羅飄風人, 洪仁隆等十三人.”

77) 『高麗史』卷134, 列傳 47, 禡王 7年 7月 條, “濟州人飄泊上國境. 時大明疑我從北元, 見囊中書, 有紀洪武年號, 喜厚慰遣還.”

한다. 송과 고려 간 항로는 남방항로인 명주—주산군도—동중국해—흑산도—서해연안항로—예성강—벽란도—개경으로, 송 상인은 계절풍을 이용하여 대체로 5월에서 8월 사이에 고려에 도착하여 머무르다가 11월 이후 돌아갔다. 송과 일본 간 항로는 명주—琉球群島—五道列島—큐슈 노선을 이용하거나 명주—주산군도—오도열도—큐슈 노선을 활용하였다. 일본인들은 먼저 탐라에 도착하여 逆轉循環回流을 이용하고 계절풍을 만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明州에 도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에서 송으로의 항해 시기는 주로 1월부터 3, 4월, 9월에서 11월로 열흘정도 걸린다고 하였으며, 송에서 일본으로의 항해 시기는 5월에서 8월 사이가 많았다. 고려와 일본 간 항로는 개경—金州(김해)—대마도—큐슈 노선이 주로 활용되었고 시기는 북서계절풍이 부는 7월에서 9월이 가장 많았다.<sup>78)</sup> 탐라와 일본은 탐라—금주—대마도—큐슈 항로가 이용되었다.

탐라의 표류인들은 고려를 통해 송환되었다. 3번의 기록에서 송에서는 탐라인들을 고려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일본에 표류한 경우 대마도에서 금주를 통해 송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표류한 탐라인 역시 대마도와 금주를 통해 탐라로 송환되었다.

당시 해상무역에 참가했던 탐라상단은 고려 외에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해상무역을 떠났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탐라가 고려 외의 국가들과도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113년(예종 8) 6월 1일 “珍島縣 백성 漢白 등 8인이 장사하기 위해 毛羅島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宋 明州에 이르렀다. (明州에서) 송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이들에게 각각 비단 20필과 쌀 2석을 하사하고 돌려보냈다.”<sup>79)</sup> 기록에서 진도와 나주 등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에서도 상업 활동을 위해 탐라를 방문하고

78) 裴淑姬, 「宋代 東亞 海域上 漂流民의 發生과 送還」, 2010, 74~75쪽.

79) 『高麗史』卷13, 世家 13, 睿宗 8年 6月 條, “珍島縣民漢白等八人因賣買, 往毛羅島, 被風漂到宋明州. 奉聖旨, 各賜絹二十四匹米二石, 發還.”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항해에서 표류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고 1 번이나 7번의 경우처럼 전혀 모르는 낯선 지역에 표착하였을 경우에는 살인 등의 두려움과 위험 요소는 더 컸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탐라가 타국 상선의 표착지가 된 경우도 있다.

Ⅲ-① “(갑진) 31년(1244) 봄 2월 계유 有司가 전 濟州副使 盧孝貞과 判官 李珪이 재임시에 일본 상선이 폭풍[颶風]을 만나 제주 해역에서 난파하였는데 노효정 등이 綾絹과 은, 진주 등의 물건을 私取하여 탄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노효정에게서 은 28근, 이각에게서 은 20근을 추징하고 섬으로 유배 보냈다.”<sup>80)</sup>

Ⅲ-② “금년(1292년) 5월에 귀국(일본) 商船이 耽羅의 해안가에 정박하였는데, 탐라는 성질이 완고하고 곧아 그 상선을 활로 쏘아서 쫓아버리고 2명을 잡아서 보냈습니다.”<sup>81)</sup>

Ⅲ-③ “1326년 원에 건너갔다가 귀로에 오른 배가 탐라에서 좌초되었다. 거기에서 선원이 육지에 오르자 도민과 전투가 벌어져 사망자도 나왔다. 고려의 현령은 원의 황제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원 황제의 명으로 배와 식량을 지급받아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갔다.”<sup>82)</sup>

80) 『高麗史』 卷23, 世家 23, 高宗 31年 2月 條, “(甲辰)三十一年春二月癸酉, 有司劾奏, 前濟州副使盧孝貞, 判官李珪, 在任時, 日本商船遇颶風, 敗於州境, 孝貞等私取綾絹·銀·珠等物, 徵孝貞銀二十八斤·珪二十斤, 流于島.”

81) 『高麗史』 卷30, 世家 30, 忠烈王 18年 10月 條, “今年五月, 貴國商船, 到泊耽羅洲渚. 耽羅性頑頡, 射逐其船, 邏捉二名而送之.”

82) 『乾峰和尚語錄』 卷2, 悼高麗鬪死僧軸序. 에노모노 와타루, 「송일·원일 간 해상 항로와 고려 도서지역」, 『해양문화재』 9, 2008, 87쪽 재인용.

Ⅲ-④ “엔닌(円爾)은 1235년 송에 건너갔던 일본 승려로 1241년 5월 초하루 귀국하면서 경원부(慶源府, 明州) 정해현(定海縣)에서 출발하였는데 풍랑을 만나 선단을 이루었던 다른 두 척의 배는 이미 침몰하고, 엔닌이 탔던 배는 간신히 침몰을 면하여 6월 그믐에 ‘高麗國耽沒羅阿私山下’에 4일간 정박하였다”<sup>83)</sup>

위 기록은 모두 일본 상선의 표류 사례로 모두 풍랑을 만나 탐라에 표착하게 된 경우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탐라의 대응은 그리 환대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심지어 Ⅲ-①의 기록은 표류인들을 관리하고 돌려보내야 할 임무가 있는 제주의 관리들이 오히려 배에 있던 재물을 약탈하고 있으며 Ⅲ-②와 Ⅲ-③에서는 표류한 선박을 쫓아버리거나 이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Ⅲ-④의 엔닌은 1235년 송에 건너간 일본 승려로 5월 1일에 정해현에서 출발 후 6월 그믐에 탐라에 정박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2개월간 바다에서 표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록들로 보아 탐라는 동중국해를 왕래하던 선박들에게 위협하기도 하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정박지로서 매우 중요한 섬이었음을 알려준다.

표류민들의 신분은 使臣, 상인, 승려, 군인, 家奴, 어부 외 특별한 신분을 기록하지 않고 ‘民’, ‘人’, ‘표류인’, ‘고려인’, ‘탐라인’ 등으로 표기되었으며<sup>84)</sup> [표 3]의 탐라표류인들의 신분이 대부분 ‘탐라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모두 상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동아시아 해역권은 민간교역이 중심을 이루었고 따라서 특별히 신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상인으로 봐도 무방

83) 『聖一國師 円爾 年譜』仁治 2年 條, “五月朔, 船出明州定海縣, 至大洋, 風波甚惡, 同發者三船, 二船已沒, 我船亦將沈者數次, … 六月晦, 著高麗國耽沒羅阿私山下, 留滯四日. 七月, 達博多.” 에노모노 와타루, 「송일·원일 간 해상항로와 고려 도서지역」, 2008, 83쪽 재인용.

84) 전영섭, 「10~13세기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2011, 390~391쪽.

할 듯하다.

송, 일본, 고려의 표류민에 대한 송환절차는 특별히 규정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표류민을 서로 송환시켜주는 관행이 있었으며 식량지급과 송환은 기본적인 조처였다. 일례로 1113년(예종 8) 6월 1일 “珍島縣 상인들의이 표류로 宋 明州에 이르렀을 때 송은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이들에게 각각 비단 20필과 쌀 2석을 하사하고 돌려보낸다. 송은 ‘외국의 藩舶이 표류하여 중국 연해 지역에 닿아 배가 파손되고 船主의 부재시 官에서 구제하여 화물을 기록하고 그 친속에게 돌려주어 도적을 방지해야 한다’<sup>85)</sup>는 외국인 표류 선박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어 보호하였다.

표류는 송환 과정에서 표류인이라는 매개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기도 하였으며, 당시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표류인들의 송환지는 대외교섭창구의 역할도 하였다. 표류되어 탐라로 왔거나 표류했던 탐라인이 돌아온 경우 이들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3번의 경우처럼 표착한 지역에서 새로운 선박수리 기술을 배운다거나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明州는 국외와 연결되는 루트로서 정치·문화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1134년의 표류사건 이후 탐라인의 표류에 대한 기록은 1229년(고종 16) “宋의 상인 都綱 金仁美 등 2명이 풍랑으로 표류해간 제주도 백성 梁用才 등 28명과 함께 왔다”는 내용만 있고<sup>86)</sup> 백여 년간 표류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탐라의 지방편제 후에는 탐라의 해상활동 범위가 한반도 내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110여 년 후인 1379년(우왕 5)<sup>87)</sup>과 1381년(우왕 7)<sup>88)</sup> 2회의 표류기록만 보인다. 즉 12세기 이후 탐라

85) 『宋會要輯稿』, 「職官」 44-8, 哲宗 元符 2年 5月 12日 戶部. 裴淑姬, 「宋代 東亞 海域上 漂流民의 發生과 送還」, 2010, 80쪽 재인용.

86) 『高麗史』 卷22, 世家 22, 高宗 16年 2月 條, “乙丑, 宋商都綱金仁美等二人, 偕濟州飄風民梁用才等二十八人來.”

의 해상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교역의 공간적 범위도 고려로 한정되어 안전하고 익숙한 항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의 연안항로 항해 등 익숙한 바닷길 이용은 해상에서의 難破 위험성도 줄여주었고 달라진 탐라의 위상은 海域을 통한 교류의 모습으로 제한되었다.

### 3. 탐라의 교류양상 변화

12세기 이후 탐라가 고려의 지방정부로 완전히 복속된 후 탐라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교류양상도 변화한다. 1153년(의종 7) 탐라의 팔관회 진상 기록 이후 더 이상 탐라국으로 팔관회에 참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 탐라는 고려의 縣으로 완전히 복속되었고 외관이 파견되었으며 탐라의 역할은 개경으로 진상할 공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었다. 탐라군으로 편입되면서 공납이 매년마다 이뤄지는 세공으로 바뀌고 여기에 지방관의 추가적인 공물 징수는 탐라민들의 공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경제적 폐해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탐라에 郡이 설치되고 고려정부로부터 직접 수령이 파견되지만 토호 세력인 성주와 왕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시키는 대가로 성주와 왕자의 지위를 세습하는 독자적인 토착 세력권을 인정하였으며 공물을 제외한 조세도 개경으로 보내지 않았고 탐라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1153년부터 탐라의 행정단위 서열이 높아져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외관의 급여를 감당해야 했다.<sup>89)</sup> 이는 지방관에 의한 경제적 수탈을 일정정도 용인해 준다는 의미이

87) 『高麗史』 卷134, 列傳 47, 禡王 5年 6月 條, “帝遣選耽羅飄風人, 洪仁隆等十三人.”

88) 『高麗史』 卷134, 列傳 47, 禡王 7年 7月 條, “濟州人飄泊上國境, 時大明疑我從北元, 見囊中書, 有紀洪武年號, 喜厚慰遣還.”

89) 인종 때의 外職 邑祿에 따르면, 탐라현령의 녹봉은 연 26석 10두, 현위는 20석이다.



기도 한다. 인종대 김부식의 문생이었던 오인정이 10여 년 간 관직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김부식은 ‘衣食이 나오는 곳’이라며 吳仁正을 탐라구당사로 파견하며 설득하고 있다.<sup>90)</sup> 1259년(고종 46) “金之錫을 濟州副使로 파견하였는데 고을 풍속에 남자 나이 15세 이상이면 歲貢으로 콩 1섬(斛)을 바치게 하였으며, 관아의 서리 수백인은 해마다 말 1필을 바쳐 이를 副使와 判官이 나누어 가졌으며 수령들은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를 축적하여 김지석이 이를 금지하였다”<sup>91)</sup> 의 기사에서도 보이듯 탐라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임지였고 이를 감당해야 할 탐라민들의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국가의례를 거행할 때 진상품도 의무적으로 바치는 등 공물 부담이 늘어났으며, 탐라에 부임하는 관리들은 탐라가 衣食을 넉넉히 해 주는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공을 빙자한 수탈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최척경의 경우에서 보듯 청렴한 관리 생활을 하였을 땐 그 직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굶주림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sup>92)</sup> 일반적으로 탐라에 온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치부하거나 수탈한 재물을 권세가에게 바쳐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다.<sup>93)</sup>

90) 김용선, 「吳仁正 墓誌銘」, 『역주 고려 묘지명집성-상』,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 相國見而曰曰, ‘爾爲門生, 何不早詣於○○’ ○○是差授毛羅鳥句當使. 公欲改受京官, 相曰 ‘吾之所○○○○以公家貧落魄, 而彼地可資以爲衣食 故亦○○○○可求矣’”

91) 『高麗史』 卷121, 列傳 34, 良吏 金之錫, “金之錫, 未詳其世係. 高宗末, 爲濟州副使. 州俗, 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衙吏數百人, 各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以故守宰雖貧者, 皆致富. 有井奇·李著二人, 嘗守是州, 俱坐贓免. 之錫到州日, 卽蠲貢豆·馬, 選廉吏十人, 以充衙吏, 政清如水, 吏民懷服. 先是, 有慶世封者守濟州, 亦以清白稱”

92) 『高麗史』 卷99, 列傳 12, 崔陟卿, “... 王謂宰相崔褻僂曰, ‘有賢如此, 何不用之’ 召賜綾絹, 卽除耽羅令. 陟卿請挈家以赴, 王許之, 任耽羅者, 與室偕, 自陟卿始. 耽羅人聞陟卿來, 卽具輕艦迎之. 比入境, 皆投戈羅拜曰, ‘公來, 吾屬再生矣.’ 按塔如故”

93) 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역사와 교육』 25, 2017, 133쪽.

무인집권기와 江都期에도 팔관회는 설행되었지만 13세기 후반 원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 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탐라의 고려 복속은 진상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공부와 진상이라는 이중적 수취구조가 이루어졌으며 과도한 공부와 지방관들의 수탈, 이에 대한 반발로 수차례의 民亂이 일어났다. 고려후기에 탐라가 지방으로 완전히 편제되었지만 고려말까지 土官 세력은 성주·왕자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sup>94)</sup> 따라서 공물 수취와 진상, 지방관과 토관 세력 간의 권력 구조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상황은 계속 내재되어 있었다.

1168년(의종 22) 탐라에서 일어났던 ‘良守의 亂’ 또한 그런 선상에서 볼 수 있다.

III-⑤ “정축에 탐라안무사 趙冬曦가 入覲하였다. 탐라까지는 힘준하고 멀어 攻戰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다 토지가 기름져서 나라의 재정에 충당되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貢賦가 煩多하지 않아 백성들이 생업에 즐거워하였는데 근자에 들어와 관리들이 불법을 행하고 도적의 우두머리 良守 등이 모반하여 수령을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왕이 조동희에게 명하여 持節로 宣諭하게 하자 적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양수 등 두 명과 그 무리 5인을 참수하고, 나머지에게는 모두 곡식과 布帛을 내려 이들을 위무하였다.”<sup>95)</sup>

94) 1404년(태종 4) 濟州 土官의 칭호를 고쳐 星主를 都州官左都知管으로, 王子를 都州官右都知管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朝鮮王朝實錄』卷7, 太宗 4年 4月 21日 辛卯 條).

95) 『高麗史』卷18, 世家 18, 毅宗 22年 11月 條, “丁丑 耽羅安撫使趙冬曦, 入覲. 耽羅險遠, 攻戰所不及, 壤地膏腴, 經費所出. 先是, 貢賦不煩, 民樂其業, 近者, 官吏不法, 賊首良守等, 謀叛, 逐守宰. 王命冬曦, 持節宣諭, 賊等自降. 斬良守等二人及其黨五人, 餘皆賜穀帛, 以撫之.”

96) 『高麗史』卷99, 列傳 12, 崔陟卿.

‘양수의 난’은 1153년 탐라의 팔관회 진헌 기록 후 처음 보이는 기사이다. 탐라가 고려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된 후 처음 발생한 민란이자 탐라의 지위가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불법을 이유로 양수가 난을 일으켜 수령을 내쫓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과중한 부세 부담과 지방관과 토착 세력 간의 갈등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탐라가 지방으로 편제되면서 과중한 공물 수취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난이 정리된 후 탐라인들이 최척경을 다시 탐라현령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sup>96)</sup> 이를 반증한다.

Ⅲ-⑥ “壬戌에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과 최의가 기르던 胡馬를 문무 4품 이상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sup>97)</sup>

Ⅲ-⑦ 1260년 7월 9일(원종 원년) “乙亥, 濟州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4품 이상의 문·무 관리들에게 하사하였다.”<sup>98)</sup>

위 Ⅲ-⑥, Ⅲ-⑦ 사료들은 耽羅馬에 대한 내용으로 탐라에서 바친 貢馬를 문·무 4품 이상 고위관료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으로 탐라마는 품질이 좋은 胡馬와 함께 관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공물이었다. 탐라에서 진상했던 말을 고위 관료들에게 하사하는 일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탐라는 원의 목마장 설치 이전에도 큰 규모의 목축이 이뤄지고 있었고 말이 주요 진상품이었음을 보여준다. 말의 공납 비중도 타지역에 비해 많았으며 말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심했다. 공납 외에도 別膳, 私膳 등의 명목으로 말

97) 『高麗史』 卷24, 世家 24, 高宗 45年 5月 13日 條, “壬戌, 以濟州貢馬及崔瑄所畜胡馬, 分賜文武四品以上.”

98) 『高麗史』 卷25, 世家 25, 元宗 元年 7月 9日 條, “乙亥, 以濟州貢馬, 賜東西四品以上.”

을 진상하였다.

이후 중앙정부의 과도한 공물 수취는 탐라인들의 반발과 더불어 토호 세력과 지방관의 대립을 불러왔다. 고려후기 문신인 鄭以棼가 朴德恭을 임지(탐라)로 보내는 序에, “그 풍속이 야만스럽고 거리도 먼 데다가 성주·왕자·토호의 강한 자가 다투어 평민을 차지하고 使役을 시켜, 그것을 人祿이라 하여 백성을 학대하여 욕심을 채우니, 다스리기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sup>99)</sup>는 글을 보냈던 상황으로 보아 탐라의 토호세력들과 지방관의 대립은 고려말까지 계속되었으며 고려 정부가 탐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상황이 내재된 채 이어지고 있었다.

#### IV. 맺음말

앞 장에서 탐라의 해양성과 지향점을 대외교류를 통해 살펴보고 해양 국가로서의 면모를 살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맺고자한다. 고대 탐라는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해양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과 서로 밀접하게 통교하고 문물을 수입하면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였다. 고대와 중세 동북아시아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이용하였으며 탐라는 그 중간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송, 한반도,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교섭하고 조공·책봉 질서 안에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활발한 해상교역을 이어갔다.

새롭게 들어온 문물들은 탐라사회의 발전을 가져와 7~8세기 대에는 중국, 신라, 일본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이후로도 꾸준

99)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風俗 條.

한 해상활동과 교역을 통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탐라의 해양성과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10~12세기 탐라와 고려는 시기별로 교류의 양상과 성격이 달라진다. 925년 고려와 처음 통교한 후 1105년 탐라군으로 편제되기 전까지 탐라는 고려의 간접지배를 받는 조공국으로 고려와 교류하였으며 그 안에서 외국으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탐라의 팔관회 참여는 고려의 간접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번국으로의 지위 유지와 무역의 한 방편으로 고려를 기반으로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팔관회에서의 외국인 진헌 의례 참가 및 고려를 비롯한 송, 여진, 거란, 일본, 대식국 등 고려를 찾아 온 외국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며 무역을 통해 경제적 부를 쌓았다. 전복, 굴, 말 등은 탐라의 중요한 특산물로 수요가 많았으며 고려왕의 하사품과 서적, 도자기, 종교 시설과 의례 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탐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통로였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자 했던 탐라인들에게 바다는 외부세계와 연결해 주는 공간이지만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표류는 항해 도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의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국가 간의 교류이다. 탐라상인들은 송과 일본으로 표류하였으며 일본 선박들 또한 탐라로 표류하여 왔다. 이는 당시 해상무역에 참가했던 탐라상단이 고려 외에도 일본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해상무역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류에 의한 교류는 송환 과정에서 표류인이라는 매개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기도 하였으며, 당시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고, 표류인들의 송환지는 대외교섭창구의 역할도 하였다. 표착한 지역에서 새로운 선박수리 기술을 배운다거나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명주는 국외와 연결되는 루트로서 정치·문화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과 일본, 고려는 바다를 오가는 중간 지점

에 위치했던 탐라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이후 元의 일본 침략 시 탐라를 전진기기로 활용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3세기 후반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탐라의 고려 복속은 조공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탐라가 고려의 지방정부로 완전히 복속된 후 탐라에서는 공부와 진상이라는 이중적 수취구조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탐라는 고려의 현으로 완전히 복속되었고 외관이 파견되었으며 탐라의 역할은 개경으로 진상할 공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면서 탐라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수차례의 민란이 일어났다.

더불어 고려 후기 탐라가 지방으로 완전히 편제되었지만 고려말까지 토관 세력은 성주·왕자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공물 수취와 진상, 지방관과 토관 세력 간의 권력 구조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상황은 계속 내재되어 있었다.

12세기까지 당시 동아시아 교역시스템 안에서 탐라의 대외교류 양상과 탐라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탐라가 남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주로 한반도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021.03.28. 투고 / 2021.04.12. 심사완료 / 2021.04.19. 게재확정)

[Abstract]

## Foreign exchange of Tamra in the 10th to 12th centuries

Ko, Su-mi

This dissertation analyzes Tamra's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10th and 12th centuries to explore the maritime characteristics and the nature of Tamra's maritime activities.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mra and Goryeo, which had been held between the 10th and 12th centuries, was mainly focused on the political part. However, people called the Tamra people also went to the sea to make a living and expand their lives. The nameless Tamra people risked trading across the sea to neighboring countries. The pre-modern sea was a place of life and a world of possibility to expand the limited area of Jeju.

At that time, Tamra interacted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ong, Japan, and Goryeo through its search in East Asia trade system based on the sea, and advanced civilization accepted from them stimulated Tamra's culture and became the foundation for a new culture.

After the foundation of Korea, Goryeo want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status embodied in the Palgwanhoe's(八關會) foreign participation event. Merchants who visited Goryeo from Song(송), Kitani(거란), Dorchin(여진), Tamra, Japan, and Arabia(大食國) strengthened their tribute Trade and embodied the multi-pronged worldview of Goryeo through a gift-giving event to the king at Palgwanhoe.

Tamra took advantage of thi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relations with Goryeo, earning economic benefits from trad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at visited Goryeo. Although Tamra was ruled by Goryeo, it continued its exchange activities through the sea as it existed as an independent country under the system of appointing tributes and kings. The weather deteriorated and the ship was damaged and drifted to Sung(宋) and Japan, which also gave another opportunity for exchange.

Tamra became a province of Goryeo in the mid-12th century, losing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country, and the scope and appearance of maritime activities were greatly reduced. The Goryeo government's heavy tax collection and exploitation caused opposition from Tom Line, which led to a rebellion.

□ Keyword

From 10 until 12th century, Tamra, Foreign Exchange, Palgwanhoe(八關會), drift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吳仁正 墓誌銘』, 『元高麗記事』, 『日本書紀』, 『世宗實錄地理志』

## 2. 연구논저

고창석,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 -고려전기를 중심으로-」, 『제주대 논문집』 14, 1982.

高橋公明,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도서문화』 20, 2002.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학보』 58, 2018.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2018.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김일우,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 1998.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김일우, 「高麗와 耽羅의 관계 형성과 그 형태」, 『한국학보』 3-2, 2004.

김용선, 「吳仁正 墓誌銘」, 『역주 고려 묘지명집성-상』,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2005.

裴淑姬, 「宋代 東亞 海域上 漂流民의 發生과 送還」, 『중국사연구』 65, 2010.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에노모노 와타루, 「송일·원일 간 해상항로와 고려 도서지역」, 『해양문화재』

9, 2008.

여원관게사연구팀, 『역주 원고려기사』, 선인, 2008.

오영주, 「제주전북 역사성 기반의 식품특화전략」, 『제주도연구』 53, 2020.

이유진, 「탐라의 대일교섭 -『日本書紀』의 교류기록을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장창은,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전경수, 「耽羅鰓과 “耽羅海” : 公共体の “海政學”을 위하여」, 『제주도연구』 50, 2018.

전영섭, 「10~13세기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석당논총』 50, 2011.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2015.

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역사와교육』 25, 2017.

전영준, 「고려시대 동아시아의 해양과 국제교류 양상」,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전영준, 「10~12세기 고려의 渤海難民 수용과 주변국 同化政策」, 『제주도연구』 55, 2021.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진영일,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탐라문화』 16, 1996.

고수미,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제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4.